

3

에코힐링 기업 주식회사 선양사례

김규식

(주식회사 선양 기획조정실장)



Creative & Good Company

창의적이면서 공익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회사

에코힐링 기업 - 선양

기업광고



작은 배려로 시작된 큰 나눔... 계족산 황톳길 14.5km

계족산



- 대전광역시 동북쪽 대청호 사이 위치
- 대전역, 신탄진 IC에서 약 25분
- 높이 해발 423m
- 200~300m 중턱 약 100리(40km)에 이르는 폭 5m의 숲길

스토리 가득한 계족산 횡돛길 14.5km



2006년 4월.

하이힐에서 시작된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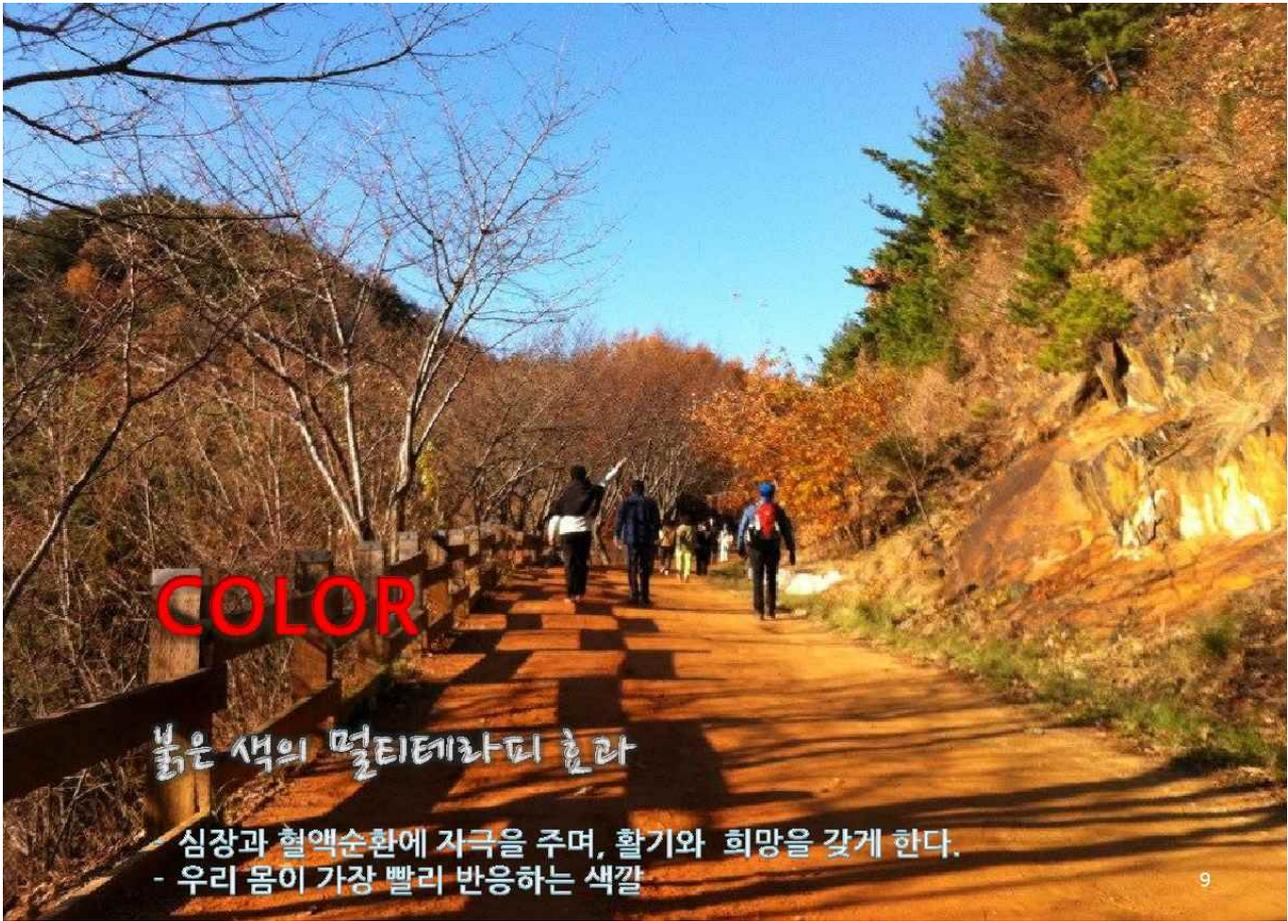


2006년부터
산에 흙을 깔기 시작



촉감

맨살로 느끼는 말랑하고 부드러운 촉감





차별화된 문화콘텐츠의 힘... 에코힐링 프로그램



Since 2006
매바축제
데족산 21km
Barefoot Fe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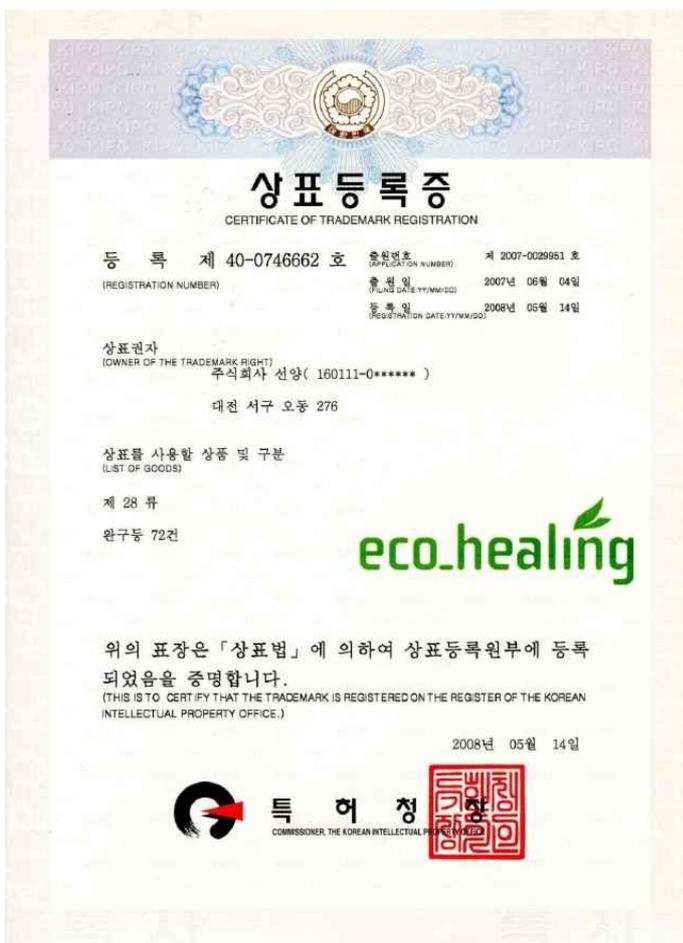


에코힐링

eco.healing

‘환경’을 뜻하는 ‘ecology’와 ‘치유’를 뜻하는 ‘healing’을 결합한 ‘eco_healing’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자는 (주)선양의 기업철학입니다.

13



14

맨발로 달리면서 클래식 연주 들으며... 비보이 공연도 보고... 결승선이 다가오니 꽃길이네

山中 마사이 마라톤

대전 계족산에서 2000여명 참가
마사토 1000t 뿌려 코스 만들어

어렵나무, 소나무 등이 하늘을 기원 만큼 죽죽 뻗은 숲 속 맨발로 흥경을 달린다 보니 이대선기 바이올린 연주 소리가 들렸다. 마라톤 대회에 뭘 클래식 음악이? 참가자들은 잠시 멈춰 숲속 연주들의 감동에 빠져 들 수 밖에 없다. 다음엔 사물놀이 응원단이 나타나고, 결승선이 가까워 지자 걸 워너 꽃이 가득했다. 결승선 100m 앞, 폭 5m의 길 양 옆으로 길게 늘어선 자원봉사자들이 꽃을 흩날리며 완주를 축하했다.



"세상에 이런 바리본레도 있나요?" 참가기가 어찌했다"고 말했다.

플코스를 30회 이상 완주한 마라톤 마

했다. 맨발로 숲속 흥경을 달리던 자양과

참경과 효과를 연이연에 얻을 수 있기

조 회장은 이 대회를 '자연을 통한 치유(에코힐링 Eco-healing)'라고 정의했다.



마사이마라톤 참가자들이 흩날리며 앞서 완주를 다짐하며 바이올린을 외치고 있다(사진 위). 주자들이 달리는 코스 중간에서 실내악단이 김미로로 음악 연주로 참가자들의 힘을 북돋웠다. (주)선영 제공

(마라톤)적인 기쁨이 있어 2007년은 다

많은 입회원과 기금 600여명이 대회를

를 할라에는 중점을 기울였다.

주 애타는 이 대회를 '자연을 통한 치

흥현포 기자 bowler@chosun.com

萬物相

아프리카 동북부 케냐와 탄자니아에 사는 마사이어족은 많이 걷고 잘 걷는다. 마사이어족 어린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맨발로 5km를 걸어가 물을 길어온다. 여자들은 장을 보러 왕복 20km씩 걷고, 남자들은 소와 양을 돌보느라 종일 초원을 쏘다닌다. 마사이어족들은 하루 평균 3만보를 걷는다. 하루 5400보를 걷는 한국인의 6배 가깝다. 걷기가 곧 생활인 셈이다. ▶마사이어족은 이렇게 많이 걸어도 별로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달걀을 푼듯 걷는 방법'이 비결이다. '발뒤꿈치→발 바깥 측면→새끼발가락 부근→엄지발가락 부근→엄지발가락' 순으로 땅에 닿게 걷는 것이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 발바닥 아래 달걀이 있다 치고, 이 깨지지 않도록 굴리는 기분으로 걷는 중의 압력이 분산되고 발바닥에 끌고 가는 무게가 줄어들어 가볍게 걷는 것이다. ▶스위스 공학자 칼 플러는 요령으로 고생하다 맨발로 부드러운 땅을 걸을 때 허리가 덜 아프다는 사실에 착안해 신발을 개발했다. 바닥이 평평한 여는 신발과 달리 땅에 닿는 발바닥 중앙부분이 둥글게 튀어나온 반원형이다. 이 신발을 신

마사이 마라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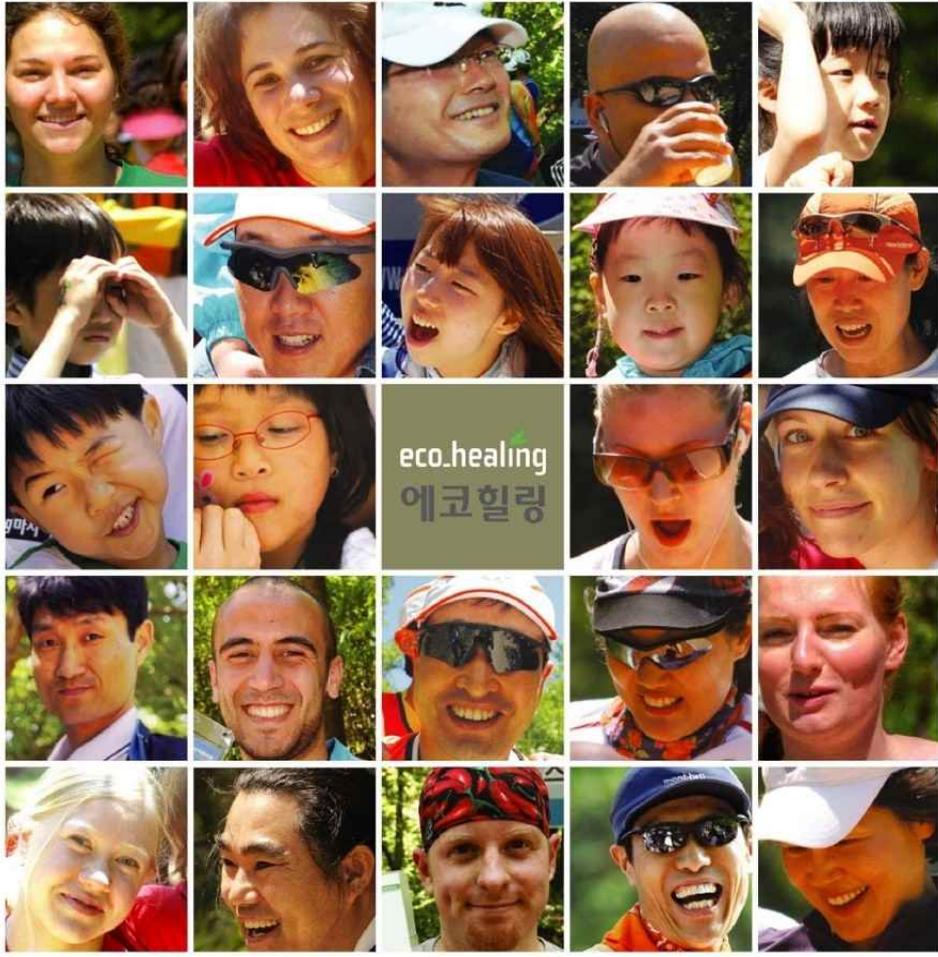
“자연을 통한 치유”

으면 마사이어족처럼 발을 굴리듯 걷게 된다. 그래서 'MBT(마사이 맨발기술)'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작 이 기술의 탄생지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한국이다. 플러는 1980년대 한국 유학 중 눈길을 끌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다. ▶그때 대전 계족산 산림욕장에서 '마사이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맨발로 흥경을 달린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소주회사 선영이 두 번째

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2000여 명이 참가해 맨발로 숲속 흥길 13km를 달리며 발바닥 지압과 산형음을 동시에 누렸다. 대회를 청안한 조웅래 회장은 플코스를 30회 넘게 완주한 마라톤 마니아로, 마사이어족 마라톤을 '자연을 통한 치유'라고 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걸음을 조사해보니 전업주부가 3000보, 대중교통 승단을 이용하는 회사원이

람보다 빠르게 뛰는 무무 배달원이 더 건강할 수밖에 없다. 천리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다. 맨발로 흥 길은 아니어도 출근길이나 동네 골목길 걷기라도 당장 시작해볼 일이다.

강인선 논설위원 insun@chosun.com



세계 4개 언어로 15개국에 소개

• 한국관광공사 MICE상품으로
15개 국 27개 해외지사에서 배포



Jagalchi Festival
Jagalchi Festival in Busan is the largest seafood festival in Korea.



Seogwipo Chilsimni Festival
The Festival has been inspired by the dream of being forever young. Chilsimni refers to an ideal world that represents the beauty and mystery of Seogwipo.

Seongsan Sunrise Festival
Launched in 1994, the Seongsan Sunrise Festival is held on top of Jeju Island's Seongsan Ilchubong or "Sunrise Peak."

Mt. Gyejoksan Barefoot Festa
The eco-friendly Mt. Gyejoksan tourist zone in Daejeon is a unique place which requires visitors to forget shoes and go to a soft red clay trail.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Despite its short history since 1996,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IFF) has grown into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ilm festivals in Asia.

체험여행의 명소가 된 계족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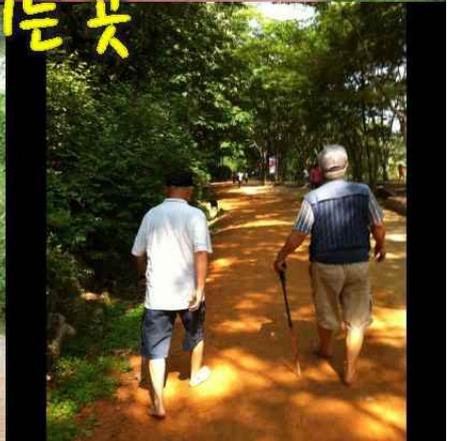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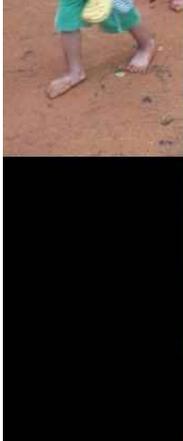


- 한국관광공사에서 뽑은 '5월에 꼭 가봐야 할 명소' 선정
- 여행 전문기자들이 뽑은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 33' 선정
- G마켓 '지방자치단체 e-Marketing Fair' 여행부분 대상 수상

19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저절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



다양한 모임, 소통의 공간으로 인기



회의, 워크숍, 예배, 단합대회 등 각종 모임장소로 인기



21



도심 곳곳으로 퍼진 황톳길 맨발걷기 문화





치유와 소통을 나누는...
에코페라 공연단, 그리고
계족산 숲속음악회



2007년부터 꾸준히 해 온 찾아가는 음악회 - 연간 80회 공연



교도소, 군부대, 고등학교, 문화소외계층 등



고3 & 학부모, 선생님 대상 클래식공연과 함께 하는 '힐링 특강' 재능기부



2012년 11~12월, 15개교 5,200명 대상 시행

맨발, 클래식, 문학의 어울림



(fun fun) '반반반한' 클래식과 함께하는 문학인과의 만남

9.23(일) 16:00-18:00 소설가와 함께 <만다린> 김성동 작가
10.14(일) 16:00-18:00 시인과 함께 <고요의 초대> 조정권 시인

장소: 숲속음악회 공연장 주관: 영교빌딩 기업 - 선양. (사)백박스



2012년 08월 26일 (월) 32면 오마이뉴스

지친 사람들 치유하는 계축산 14.5km 황톳길

오마이뉴스 '황토(黃土) 맨발 걷기'에 제1차 시인(詩人)인, 시인(詩人)이 발을 딛고 맨발로 걷는 '계축산 황톳길'이 열렸다. 계축산 황톳길은 14.5km에 달하는 산길이다. 맨발로 걷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계축산 황톳길은 14.5km에 달하는 산길이다. 맨발로 걷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계축산 황톳길은 14.5km에 달하는 산길이다. 맨발로 걷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BreakNews 한국인의 새시대

영동한 발상의 '황톳길' 왜이키기만큼 유명
 <현지 리포트> (주)선양 조종래 회장 영동발상 조성한 '계축산 황톳길'

그간의 기업들은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 문화를 만들어가는 특이한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간 기업이 만든 문화의 길, 대전시 계축산 장동산림욕장이 그곳이다. 필자는 지난 8월 26일 계축산 황톳길 맨발 걷기에 나섰다. 계축산 황톳길은 14.5km에 달하는 산길이다.

산길을 따라 주욱 걸어보면, 길 전체의 4분의 1 가량이 황토가 깔려 있다. 등산객들은 맨발로 그 황톳길을 걷는다. 마침 전날 비가 와서 황톳길은 진득진득 했고, 뭍은 황토반죽이 발가락 사이로 묻어나왔다. 필자의 고향은 송촌마을이라 어릴 적 맨발로 들관을 거닐어 본 적이 많다. 그 이후 잠으로 오랜만에 맨발로 산길을 걸어볼 수 있었다. 맨발, 원시로 돌아온 것이다.

2012년 07월 2 26면

경향신문

맨발로 황톳길을 걸어보며

낮은 목소리로
김은 시멘트를 벗고, 나는 신발을 벗고 맨살 대 맨살로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느끼며 통성명을 나눴다.

맨발로 걷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계축산 황톳길은 14.5km에 달하는 산길이다. 맨발로 걷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계축산 황톳길은 14.5km에 달하는 산길이다. 맨발로 걷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계축산은 개인 소유의 산이 아니다. 국가 소유의 산이다. 그 산에 난 소방용 도로가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명소를 거듭나기까지는 보이지 않은, 아이디어의 주체와 실행회사가 있다. 소주를 생산하는 (주)선양이 주체기업이다. 이 회사의 조종래 회장이 황톳길을 조성,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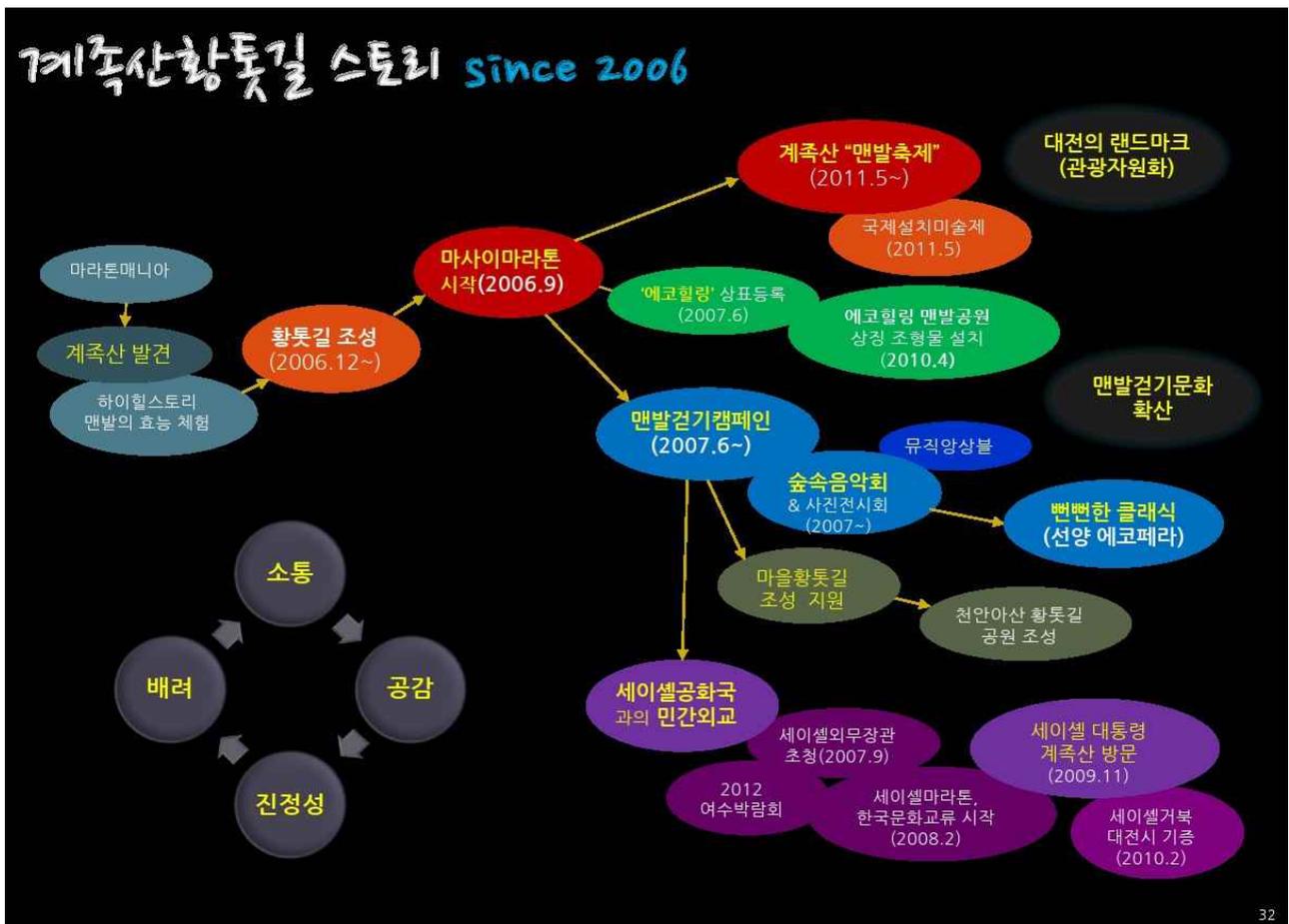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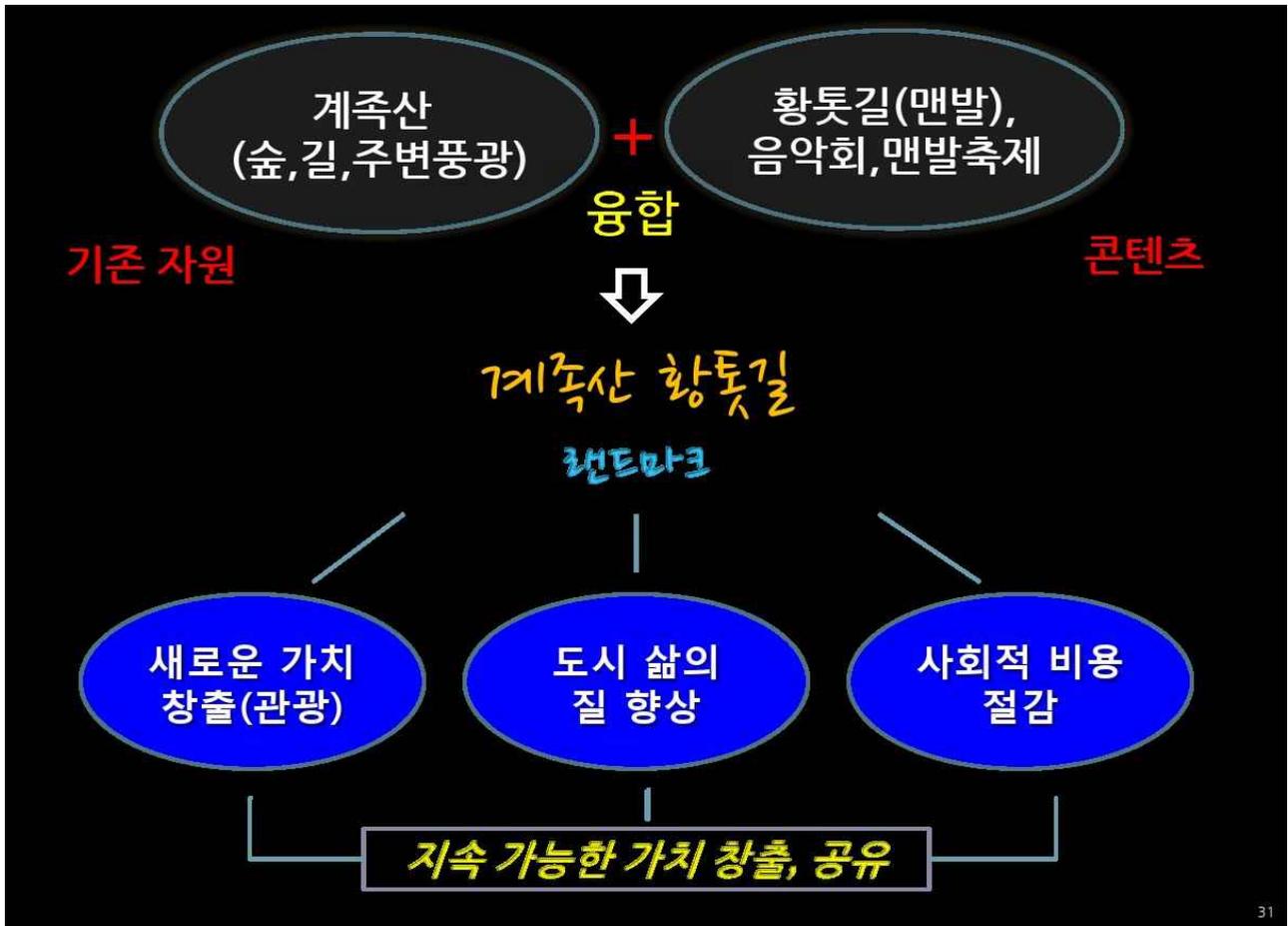
계축산을 찾는 등산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입구 도로에 걸게



지속가능한 공유가치 창조...
Creating Shared Value 경영



「 2012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대전 」 대상 수상작
“계족산 황톳길” (2012.11.25, 민영주 작가)



'소주회사가 아니라
콘텐츠 회사인 것 같다'

'엄청나게 큰 회사인
줄 알았다'

'좋은 일 많이 하는
회사다'

B2 경제

2012년 11월 15일 목요일 Business & money

“황톳길 만드니 소주가 더 팔려” ... 회장님들에게 강연한 회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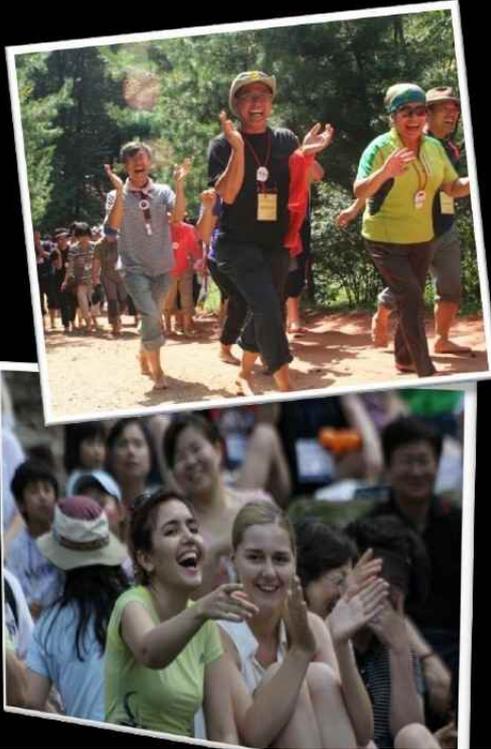
조용래 회장은
1959년 경남 함안
86년 경북대 진
89-92년 삼성전자

이건산업 박영주 회장은
“요즘 반 기업 정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기업이 많다”며
“계산기가 아닌 가슴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라고 했다.

조용래 선망 회장의 '역발상'
“주된 마음 얻는 게 먼저라 생각-
같이 평소 다니고 있다고 소주 사”
“소주 회사가 휘발유를 왜 만들어야 하지 않겠
하십니까?”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그랜드호텔에서
오전 9시에 열린 대한 7대 소주 회사인 건
의 조용래 회장이 영남대 강연했다. 영남
대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영주(74) 이진산업 회장, 조용래(82)
한솔그룹 명예회장, 김병철(74) 한국 21형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2008년 대선시 강연 계곡산에
14.5ha의 휘발유를 만들게 된 이유를 연
기 말했다. “도시 휘발유를 사내에 쓰
는데 한 배럴당 100달러를 주고 해외에서 사
입을 해야 한다”며 “그 나날에 해외로 수입
을 할 수 없게 되어 국내에서 생산해야
고 말했다. 조 회장은 휘발유를 만들어 주
나 회사 값을 수 있게 하고 마르한 유이
하게 되어 있다.”
은 “역발상”을 해서 현대에 휘발유 사업을
이행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
고 회사 장비를 하나 구입 200명대 출몰
하루의 큰 회사로 발전도 있을 수 있는 자
단점이 없습니다”고 했다.
조 회장은 1993년 500만달러를 투자
해서 2011년 3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70-80년대 전화를 경영을 맡아 자신
의 회사가 인사를 대상으로, 남에게 선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7일에서 2014년 1월 7
일인 건국대학교 강연에서, 조 회장
은 3000억에 회사를 인수했다. 그 뒤 한
달 만에 회장을 맡았다.
“차음 하는 게 조금씩 얻고 있는 지역,
평가 점에 새로운 시도를 해서 회사들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영남대 건국대학교 강연에서, 조 회장
은 “주요인 사안을 하는 게 가장
내렸다. 그 결과로 건국대학교 강연
한 강연에 대한 2014년 1월 7일
을 보여준다. 건국대학교 강연에서
그 강연 활동 4개 기관에서는 내적으로
2012년 11월 15일 목요일 Business & money

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35

규모보다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

작지만 강한 기업

CREATIVE & GOOD COMPANY

창의적이면서 공익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회사

36

충남기업 사회공헌 포럼 발제 의견

김규식 (주식회사 선양 기획조정실장)

선양은 지역사회 환원활동의 일환으로 기부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많이 하고 있으나, 이것은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기에 특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선양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인 CSV(creating shared value)활동은 많은 기업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기업입장에서 비용으로 인식하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CSR활동을 넘어 투자의 개념으로 기업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CSV활동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바람직한 흐름이라는 의견입니다.

선양의 CSV활동의 대표적인 예로, 계족산 황톳길 조성과 문화예술봉사 활동을 통한 상생활동이 있습니다. 8년 전부터 계족산에 황톳길을 조성하고 맨발걷기캠페인, 맨발 축제, 숲속음악회 등을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의 건강과 문화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지속적인 에코힐링실천으로 진정성을 느낀 시민들이충성고객으로발전하면서기업입장에서도혜택을보는상생활동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다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CSV활동을 통해 사회와 기업이 함께 공생하는 충남이 되길 희망합니다.